

## Washington State: Building Business Legends

### Why Choose Washington State?



Washington State means business. The birthplace of such legendary businesses as Boeing, Amazon, Costco, Expedia, Microsoft, PACCAR, and Starbucks, Washington State offers businesses and investors a highly skilled workforce, low-cost energy, an end-to-end supply chain in various sectors, including aerospace, agriculture, clean technology, ICT, life science, global health and maritime sectors.

### Washington's Competitive Strengths

- An extremely skilled, talented workforce focused on clean energy, information technology, advanced materials, maritime and aerospace
- Lowest electricity costs in the United States, primarily due to abundant hydropower resources, with the average residential electricity rate at 12.1¢/kWh and the commercial electricity rate at 10.54¢/kWh (November 2024)
- 73% of energy is derived from renewable sources and the state is committed to become 100% reliant on non-carbon emitting energy by 2045
- Washington ranks #2 in renewable energy usage (2024), #4 in registered electric vehicles (2023) and #4 in LEED building development (2023) in the nation
- Governor led initiatives focus on clean energy solutions, strong stewardship of the environment, innovations in grid management and energy storage, and a substantial reduction in CO<sub>2</sub> emissions and addressing climate change
- Seattle has been the sister city of Daejeon since 1989, the fifth largest city in South Korea and a hub for transportation, administration, science and technology

### Rankings

- #1 – Best State Economy (WalletHub, 2022, 2023 & 2024)
- #1 – Best State to Make a Living (MoneyRates.com, 2022)
- #2 – America's Top States for Business (CNBC, 2022)
- #1 – Lowest-Cost Industrial Energy Rates (U.S. Department of Energy)
- #2 – Renewable Energy Usage (U.S. News, 2024)

미국 워싱턴주 상무부 한국사무소

곽은진 매니저

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 센터 7층 (우: 04520)

전화: 010-4766-6177

이메일: [korea@commerce.wa.gov](mailto:korea@commerce.wa.gov) 웹사이트: [www.choosewashington.com](http://www.choosewashington.com)

## 미국 워싱턴주: 글로벌 기업의 역사와 전통, 그리고 사업 성장의 중심지

### 미국 진출을 위한 워싱턴주 선택 이유



미국 워싱턴주는 아마존, 코스트코, 마이크로소프트, 스타벅스, 보잉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자리잡은 지역으로, 전문 인력, 낮은 에너지 비용, 효율적인 공급망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생태계를 제공합니다. 또한, 워싱턴주는 ICT, 청정 에너지, 클린테크, 생명공학, 우주항공 산업 등 다양한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.

###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공룡기업까지, 워싱턴주를 주목하는 이유

워싱턴주는 혁신 중심의 경제를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을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지역입니다. 워싱턴주에서 시작한 많은 혁신 기업이 계속해서 이 곳에 사업의 본거지를 두는 가장 큰 이유로는 친기업적인 세제환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. 워싱턴주는 주 차원에서 법인세, 개인소득세, 장비 구입에 대한 판매세, 재고세, 이자에 대한 세금, 배당세, 자본이득세 등을 징수하지 않아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.

### 워싱턴주 사업환경의 특징점

-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주도 아래, 워싱턴주는 청정에너지 솔루션, 환경 관리, 전력망 혁신, 에너지 저장 방법,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
- 청정에너지, ICT, 첨단 소재, 해운, 항공우주 분야의 뛰어난 전문 인력 보유
- 킬로와트시(kWh) 당 약 20-26% 낮은 미국 내 가장 저렴한 에너지 비용 제공
- 73% 이상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생산, 2045년까지 워싱턴주 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전력을 100% 청정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규정
- 신재생 에너지 사용 전미 2위, 등록 전기자동차 전미 4위, 미국 친환경건축물 평가 및 인증(LEED) 건물 개발전미 4위를 기록
- 미국에서 15번째로 큰 도시인 시애틀은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보잉 등 소프트웨어, AI, 항공 산업이 발달한 혁신 기술 중심지